

# 금값 상승에 금테크·현금화 열풍…“시세 확인 필수”

1g당 최고 10만9천원 ‘천정부지’ 업체별 매입가 천차만별 ‘주’ 온라인 폐금 매입 업체도 늘어 측정 방식 등 꼼꼼히 따져봐야

금값이 연일 사상 최고가를 달성하는 등 천정부지로 치솟고 있는 가운데 금 투자 및 판매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경기 불황에 ‘금니’, ‘금목걸이’ 등 보관 용이던 매물을 판매해 목돈·급전을 마련하고자 하는 지역민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동네에서 접하기 쉬운 구두방, 금은방 등의 금 매입 업체가 각기 다른 매입가를 제시할 수 있기 때문이다.

19일 한국거래소(KRX) 금시장 등에 따르면 이날 기준 1kg짜리 금 최고가는 1g당 10만9800원을 기록했다. 지난 4월 중가 10만원대를 달성한 이후 꾸준히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미국 연방준비제도의 금리 인하 기대감, 이스라엘과 팔레스

타인 무장 정파 하마스가 전쟁을 벌이고 있는 중동의 확산 우려, 인도의 금 수요 급증 등의 여파로 상승 중인 것으로 보인다.

금을 사고팔 때 시세 역시 꾸준히 상승하고 있다. 이날 순금 3.75g 가격은 살 때 45만3000원, 팔 때는 40만1000원으로, 6개월 전인 지난 2월과 비교해 살 때 가격은 22.76%, 팔 때 가격은 20.42% 각각 증가했다.

한국금거래소 등에 따른 금 시세와 다르게 온·오프라인 금 판매 가격은 금 순도·중량 등 감정 결과와 업체별 매입가에 따라 천차만별로 달라진다. 금은방, 구두방 등은 당일매 바로 현금으로 판매 금액을 받을 수 있지만 업체마다 가격이 다르게 책정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같은 매물이라고 하더라도 측정 방식 등에 따라 매입가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실제 광주 동구 일대의 구두방 등을 돌아다녀 본 결과, 금감정 없이 금니를 매입

하는 곳을 발견할 수 있었다. 금은방의 경우 감정 후 시세에 따라 가격을 측정하는 경우가 많지만 업주에 따라 매입가를 다르게 매기기 때문에 ‘제값’을 받고 금 매물을 판매하고 싶다면 고가에 매물을 매입하는 곳을 잘 찾아야 한다.

구두방을 운영하는 A씨는 “금니를 팔러 오는 고객은 대부분 60대 이상이다. 예전과 다르게 손님이 줄어 2~3개월에 한 번꼴로 금니를 판매하러 오는 사람을 보는 것 같다. 따로 감정을 하지는 않고 저울로 무게를 재서 g당 1만6000원에 거래하고 있다. 감정 방식은 구두방마다 다를 것”이라며 “금니는 순금이 아니기 때문에 가격대가 높지 않다. 매입한 금니는 한 달에 한 번 금니를 수거해 가는 사람에게 넘겨준다”고 귀띔했다.

금 감정을 한 뒤 그날 시세에 따라 매입가를 결정한다는 금은방 주인 60대 안모씨는 “대부분 그날 시세를 기준으로 금을 매입하고 있지만, 매입가를 정하는 것은

업주의 자유이기 때문에 천차만별로 가격이 달라질 수 있다”며 “금값이 천정부지로 오르면 금은방 매출은 뚝 떨어진다고 보면 된다. 금은방 입장에서는 장사도 안 되는데 금을 판매하러 오면 매입이 꺼려지기도 한다. 비쌀 때 매입했다가 나중에 가격이 내려가면 큰 손해를 보기 때문이다”고 말했다.

안씨는 이어 “요즘 젊은 사람들은 온라인으로 금을 판매하는 경우가 많다. 전과 비교해 금은방에 금을 팔러 오는 사람을 찾아보기 힘든 것 같다. 온라인도 업체마다 가격이 천차만별이지만 손쉽게 가격을 비교해 볼 수 있기 때문이다. 간혹 금은방에 ‘금니’, ‘금반지’ 등을 들고 오는 손님들은 대부분 고령층이다”고 덧붙였다.

실제 폐금을 전문적으로 취급하는 온라인 폐금 매입 전문 업체를 살펴본 결과 업체마다 천차만별의 가격대를 보이고 있었다. 온라인 업체는 우편물 등으로 금니 등

매물을 받아보고 감정을 한 뒤 판매자에게 시세에 맞는 금액을 입금한다. 사이트별 금 시세를 살펴보면 인레이 1g 기준 A사이트는 8만6200원, B사이트는 9만6000원, C사이트는 9만2800원을 ‘오늘의 금 시세’로 책정하고 있었다.

총장로에서 금은방을 운영하는 70대 양모씨는 “목돈이 필요한 사람들이 가끔 금니 등을 판매하러 오는데 지금은 그마저도 줄어든 것 같다. 매입가를 시세에 따라 양심적으로 측정하고 있지만, 업체마다 가격이 천차만별이니 직접 가서 알아봐야 하는 오프라인 매장보다는 정보를 얻기 쉬운 온라인 판매를 선택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 기동성이 떨어지고 정보를 얻기 힘든 일부 고령층의 경우 금을 판매할 때 제값을 받지 못할 가능성이 높다. 발송을 팔기도 어렵고 온라인 전문 업체를 이용하는 것도 힘들기 때문이다”고 말했다.

나다운 기자 dawoon.na@jnilbo.com



**롯데마트, 송어회·초밥 출시** 롯데마트는 21일까지 ‘국산 송어회(300g)’를 엘포인트 회원 대상으로 20% 할인된 가격인 2만7800원대에, ‘국산 송어초밥(12입)’은 1만4900원대에 판매한다. 롯데마트가 선보이는 국산 송어회·초밥은 경북 안동에 위치한 스마트팜 양식장에서 엄격한 수질 모니터링 및 체계적인 관리를 통해 깨끗하고 안전하게 기른 송어 약 5톤을 사전 계약해 준비한 상품이다. 청정 지하수로 송어를 양식해 육질이 단단하며 특유의 식감과 함께 감칠맛을 즐길 수 있는 것이 특징이다.

롯데마트 제공

## 광주디자인진흥원, 인쇄소공인 라이선스 지원

저작권 침해 예방 등 기대 내달 3일까지 선착순 모집

광주디자인진흥원(진흥원)이 운영하는 광주인쇄소공인 특화지원센터가 지역 인쇄소공인을 위한 라이선스(licence) 지원 사업을 추진한다.

19일 진흥원에 따르면 이 사업은 인쇄, 출판, 광고물 등에 사용되는 유료 이미지, 서체와 같은 라이선스 사용을 지원, 저작권 침해 예방과 지역 인쇄업계의 시장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것이다.

광주인쇄소공인 특화지원센터(광주인쇄센터)에 따르면 지역 인쇄·출판 업체, 디자인회사 등은 서체, 이미지 등에 대한 저작권 침해 관련 내용증명을 받는 사례

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또 이들 영세 업체는 저작권에 대한 법률지식이 부족하고, 유·무료 여부를 제대로 알지 못해 무단 사용함으로써 저작권 침해로 이어지는 곤혹을 겪거나 분쟁에 이르는 사례도 빈번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같은 상황에서 광주인쇄센터는 최근 국내 최대 라이선스 총판업체(3개사)와 협약을 맺고, 저렴한 비용으로 폭넓은 콘텐츠를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에 들어갔다.

이를 위해 광주인쇄센터는 다음달 3일까지 광주시 소재 인쇄(출판 포함) 및 연관업계 소공인(고용인원 10인 이하, 매출 10억원 이하) 43개 업체를 선착순 모집한다.

사업 신청은 광주디자인진흥원 누리집(www.gdc.or.kr) 또는 활자활짝 플랫폼(www.hjhj.co.kr)에서 공고문의 세부내용을 살펴보고, 신청서를 내려받아 작성한 후 이메일(hk0291@gdc.or.kr)로 접수하면 된다.

신청기업은 적격심사를 거쳐 최대 100만원 이내에서 협약기업이 제공하는 이미지, 서체와 같은 각종 콘텐츠를 디자인, 인쇄물 등에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다.

박영택 광주인쇄소공인 특화지원센터장은 “최근 저작권을 둘러싼 분쟁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며 “지역내 영세한 인쇄소공인들의 애로 해소, 시장경쟁력 향상을 위한 라이선스 지원에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나다운 기자

## 금호타이어, 폭스바겐 멀티밴에 타이어 공급

7세대 차종에 ‘엑스타 HS52’ 공급 독일서 국내업체 중 최상위 평가

금호타이어가 폭스바겐의 멀티밴 7세대(T7) 신차용(OE) 타이어로 ‘엑스타 HS52’를 공급한다고 19일 밝혔다. 공급 사이즈는 2개 규격(235/55R17, 235/50R18)이다.

폭스바겐 멀티밴은 1949년부터 현재까지 폭스바겐에서 가장 오랫동안 생산 중인 모델이다. 멀티밴 T7은 폭스바겐 그룹을 대표하는 MQB 플랫폼(가로 배치 엔진 전용 플랫폼)을 기반으로 상용차의 가장 최신 트렌드인 디지털 클러스터 패키지, 무선 충전 패드 등 다양한 기능과 전동화 기술을 담아낸다.

이번 멀티밴 T7 모델에 공급되는 ‘엑스타 HS52’는 운전자에게 편안한 주행감과 높은 안전성을 제공하도록 설계돼 세단 및 스포츠 차량에 모두 적합하다. 트레드 패턴 디자인에 단단한 블록 디자인을 적용, 타이어가 노면과 접시 시 노면 마찰 압력을 일정하게 유지함으로써 충격과 소음을 감소시키고 승차감을 향상한다.

엑스타 HS52 제품은 올해 초 유럽 및 세계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독일의 자동차 전문 잡지인 ‘아데아체(ADAC)’와 ‘아우토빌트(Auto Bild)’에서 실시한 여름용 타이어 성능 테스트에서 각각 종합 3위(Good 등급)와 4위(Good 등급)를 차지하며 국내 타이어 업체 중 최상위 평가를 받은 바 있다.

김인수 금호타이어 OE영업담당 전무는 “이번 금호타이어의 멀티밴 T7 OE 공급은 폭스바겐의 시작부터 계보가 이어져 오고 있는 대표적인 차량에 납품하는데 그 의미가 크다”며 “금호타이어의 기술력과 품질을 인정받아 타오스, 제타, ID.4에 이어 폭스바겐과 강한 파트너십을 맺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금호타이어는 세계 주요 자동차 업체들과 신차용 타이어 공급을 위한 전략적 파트너십을 맺으며 타이어 공급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있다. 최근에는 주요 완성차 브랜드의 대표 전기차 모델에 신차용 타이어를 공급하며 최고 수준의 제품 기술력과 프리미엄 브랜드 가치를 입증하고 있다.

박소영 기자

## 광주신세계, 개점 29주년 감사 대축제 연다

9월1일까지 신백리워드 등 혜택

광주신세계가 오는 25일 개점 29주년을 앞두고 그동안 성원을 보내준 지역민들을 위해 감사대축제를 연다.

19일 광주신세계에 따르면 이번 행사는 ‘SHINSEGAE LOVES GWANGJU’를 테마로 사은품 증정과 특가 상품 등 다양한 이벤트를 선보일 계획이다. 9월1일까지 감사 대축제를 마련해 스타벅스 기프트카드 증정과 신백리워드 등 구매 고객들에게 풍성한 혜택을 선사한다.

전 브랜드 합산 당일 구매금액이 15만원 이상인 고객들에게 스타벅스 기프트카드 1만원권 1000개를 선착순 증정한다. 당일 신세계 제휴카드(씨티/삼성/신한/하나/BC바로)로 15만원 이상 구매한 영수증을 제시한 고객들이 대상이며 광주신세계 본관 지하 1층에서 신관으로 이동하는 연결 통로 사은행사장에서 받을 수 있다.

광주신세계는 개점 29주년을 기념해 인기 브랜드들의 29개 품목을 엄선해 특가로 선보인다.



광주신세계 본관 3층에서는 ‘제이에스타’가 제이로사 14K 목걸이 50개를 33만9300원에, ‘판도라’는 스네이크 모멘트 팔찌+스피리츨류 드림캐쳐 기프트세트 30개를 19만8000원에 할인 판매한다.

본관 7층에서는 ‘본’과 ‘레노마’가 신사

정장세트를 29만원에, ‘아이디’가 남녀 공용 베이직 반팔 티셔츠 100개를 2만9000원에 특가 할인 판매에 나선다.

신관 지하 1층에서는 ‘플랫폼’에서 배자벤처리운동화를 18만9000원에, ‘책시믹스’ 크롭 숏슬리브 반팔티셔츠 30개를 2만4000원에 특가로 선보인다.

이와 동시에 인기 골프클럽 등을 합리적으로 구매할 수 있는 공동구매도 진행 된다. ‘마제스티’ 프레시티지오 12 남성 아이언 9(5-10, P, A, S)를 480만원에 구매하는 등 공동구매 이벤트도 열린다. 참여를 희망하는 고객은 공동구매 이벤트를 진행하는 각 상품의 매장에 접수하면 되고, 최소 수량이 달성되면 구매 가능하다. 수량 미달 시에는 환불 처리된다.

광주신세계가 개점 29주년을 맞아 준비한 또다른 이벤트는 럭키드로우 행사다. 럭키드로우 행사는 참여한 모든 고객들에게 추첨을 통해 5~30% 신백리워드 쿠폰을 제공한다. 발급된 쿠폰은 개점 29주년 행사 기간인 9월1일까지 사용 가능하다. 자세한 사항은 신백 앱에서 확인할 수 있다.

나다운 기자